

# 해솔소식

HAESOL CAREER PREPARATORY SCHOOL



# 인사말



**해솔직업사관학교는 “해처럼 밝고, 소나무처럼 깨끗한,  
그리고 전문인으로 성장하여 남북교류시대 북한에서  
리더가 되라”는 메시지입니다.**

후원자 여러분, 6개월만에 소식지 20호를 통하여 인사드립니다.  
해솔직업사관학교가 문을 연 지, 어느덧 5년 반이 되었습니다. 이제 중간평가를 하면서 적어도 ‘해솔’, ‘직업’이라는 두 문자의 목표는 달성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은 매 순간순간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해솔의 여정에 힘을 쏟았습니다. ‘저희들’이라 함은, 창립자인 저와 학교 선생님들, 아이들 교육을 책임지시는 춘천의 은퇴교육자님들, 그리고 재정적 지원을 다하는 정부기관, 사회공헌기업 및 단체, 더하여 4백여 명에 달하는 개인후원자님들입니다.

제 기록에 의하면, 그간 80여명의 학생들이 저희 학교의 문을 두드렸으며, 22명의 학생들이 취업을 하였고 30명의 학생들은 해솔에서 공부중이거나 외부(전문)대학에 재학 중입니다. 나머지 30여명은 해솔의 가족이 되지 못하였는데 이는 초창기 학교체계가 미흡했던 시절에 중도탈락률이 높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입학한 학생들이 떠나는 경우가 전무한 상태입니다. 해솔family들은 “조국과 부모님을 부끄럽게 하는 자는 이 문을 드나들지 말라”는 학교 정문의 선언문처럼, 지금 최상의 엘리트로 거듭나기 위한 노력을 치열하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한편으로, 학교시설이 협소하고 운동공간이 없어 자체 학교건물을 준비하기 시작한지 거의 2년이 되어가면서, 이제 9월이면 신축공사가 시작되고 늦어도 내년 6월이면 완공하여 대단히 좋은 환경에서 공부할 수 있게 될 것 같습니다. 강원도청, 하나금융그룹, 국민금융그룹, 아산나눔재단을 중심으로 몇몇 기관과 개인 후원자들의 지원으로 재원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해솔이 장기영속기관으로 그 소임을 다할 터전을 굳게 다지고 있는 시간들입니다.

북한에서 리더가 되라는 ‘사관학교’의 목표는 앞으로 언젠가 될지는 알 수 없는 미래에 반드시 실현될 우리들의 꿈이요 희망입니다. 그때가 오면, 해솔은 남과 북의 평화적 만남에 분명 소중한 씨앗의 역할을 다할 것입니다. 비록 지금은 미약하지만 엄청난 힘을 가지는 화합의 역군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날을 기다리며 오늘도 묵묵히 항해를 하고 있습니다. 미래의 사관생도 양성은 해솔직업사관학교가 이 사회와 국가에 기여하는 아주 귀중한 사명입니다.

해솔의 완성은 학교구성원과 학생들뿐만 아니라, 관·민·기업 합작의 산물이며 우리 사회의 자량이 될 것입니다. 후원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마음을 전하며, 그 은혜에 부족함이 없는 해솔의 구성원이 되겠습니다.

더운 여름, 건강하십시오.

**학교장 김영우 드림**

## 해 슬 포 커 스



리딩레이스(Reading Race) START!

- 해슬직업사관학교 독서프로그램에 대해서

글을 읽는 능력의 중요성은 많은 매체들을 통해서 익히 잘 알고 계실 텐데요. 말투와 억양이 조금 다르거나 한국어가 부족한 우리 우리학생들에게는 특히나 중요한 '능력'입니다.

해슬직업사관학교에서는 학생들의 독서실력 향상을 위해 올해 봄부터 '리딩레이스(Reading Race)'를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리딩레이스는 수준별, 영역별로 나눠진 도서를 자유롭게 읽은 뒤, 온라인으로 독서인증 퀴즈를 풀어 그 점수를 '독서 마라톤'이라 불리는 독서이력관리를 통해 거리로 환산하는 프로그램입니다.

리딩레이스를 시작한 이후 학생들의 독서량이 비약적으로 증가했습니다. 한 달에 한 권 읽을까말까 했던 아이들이 평균 2권씩 읽는 것은 물론, 귀찮아했던 독후감도 교박 교박 열심히 써오는 모습이 참으로 기특합니다.

학생들은 스스로 책을 읽는 습관을 만들 수 있어서 좋다 이야기하고, 선생님들은 학생들이 퀴즈를 풀고 나서 쓴 독후감을 온라인을 통해 바로 확인하여 피드백을 줄 수 있어서 매우 만족해하고 있습니다.

학교에서도 가장 책을 많이 읽은 '독서왕'을 선발해 소정의 장학금을 지원하여 독서 생활을 장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학생들이 보다 많은 책을 읽고 언어발달과 학습 능력 향상, 그리고 생각하는 힘을 기를 수 있도록 리딩레이스로 꾸준히 달려가겠습니다. :)

“  
책 읽는 자신감이 생겼어요!  
”



“  
42.195km 완주해서  
독서왕 될꺼예요  
”



## 해 슬 뉴스

### 봄맞이 환경미화 활동



따뜻한 봄을 맞아 학교 앞 석사천 일대에서 환경미화 활동을 실시하였습니다. 쓰레기집게와 쓰레기봉투를 들고 허리를 숙여가며 1시간 넘게 청소를 하다 보니 빠근한 곳이 한두 군데가 아니었지만, 깨끗해진 주변을 보면서 미소가 절로 지어지며 피로도 가시는 것 같았습니다. 학생들이 주변에 도움으로 공부하고 있는 만큼, 이렇게 작은 일이라도 지역사회에 보탬이 되는 활동을 앞으로도 꾸준히 이어갈 계획입니다.

### 검정고시 합격을 축하합니다 ♡



지난 4월, 2019학년도 제1차 학력검정고시가 있었습니다. 그동안 합격이란 목표를 가지고 밤낮으로 열심히 공부했었는데요. 시험장에는 이른 아침부터 시험응시자들을 응원하기 위해 담당과목 선생님들과 시험을 보지 않는 친구들도 모두 나와 합격의 기운을 불어넣어 주었습니다. 그래서일까요? 총 8명의 응시자 중 7명의 합격자가 나왔습니다! (짜싹짜싹) 수고해준 우리학생들 모두모두 기특하고 정말 칭찬받을만합니다~

### 나의 건강상태 체크, 체크!



지난 3월, 학생들의 건강한 생활과 질병예방을 위해 건강검진을 실시하였습니다. 현대차정몽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고려대학교안암병원 의료봉사단분들께서 도움을 주셨습니다. 체지방측정을 시작으로 혈액, 소변검사부터 X-ray, 치과, 가정의학과 진료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학생의 본분인 공부도 중요하지만 내 몸의 건강을 챙기는 것 역시 중요하겠죠? 건강검진을 통해 몸과 마음 모두 튼튼해진 하루였습니다.

### 해슬바자회 OPEN~



해슬직업사관학교 건축기금 마련을 위한 해슬바자회가 서울 신사동 'place1-3'에서 열렸습니다. 이날 행사에는 해슬의 예쁜 로고를 만든 '1-1company'의 도움으로, 여러 기업체와 개인후원자분들의 기부물품이 판매되었습니다. 특별히 어린친구들이 만든 액세서리를 직접 판매하여 바자회를 더 의미 있게 해주었습니다. 덕분에 적지 않은 건립기금이 모였습니다. 바자회를 준비해주신 '1-1company'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

## 해 슬 라 이 프

---

학교 수업이 끝나고 저마다 개인시간을 보낼 때,  
봉사활동과 취미활동을 위해 삼삼오오 모임을 갖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공부는 물론 여가활동까지 두 마리 토끼를 잡고 있는 학생들을 함께 만나볼까요?



### 보드게임

우리 학생들도 또래 남학생들처럼 게임을 참 좋아합니다. 게임이라는 취미를 살려 교육을 받아 보드게임지도사자격증을 딴 학생들이 한자리에 뭉쳤습니다. 학교에서 틈틈이 보드게임을 즐길 뿐만 아니라, 지역 내 아동센터를 찾아가 아이들에게 직접 알려주는 봉사활동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설명해준 보드게임을 아이들이 재미있어할 때 뿌듯함과 보람을 느낀다고 합니다. 앞으로도 해송 직업사관학교 보드게임지도사들의 활약을 쭉~욱 기대합니다!

### 미술

작년 겨울, 이은결의 트레이스미술쇼를 본 뒤, 미술에 대한 동경심을 갖게 된 학생들이 있었는데요. 지역 내 꿈드림센터의 도움을 받아 토요일마다 미술 수업을 받게 되었습니다. 사뭇 진지한 눈빛으로 미술지도사님의 설명을 듣는 모습이 어찌나 예쁘지 모릅니다. 미술 수업은 학생들의 창의력과 집중력을 키워주는데 많은 도움이 되고 있어 정말 유익한 것 같습니다. 학생들에게도 미술처럼 재미있고 환상적인 일들이 계속되기를 기대해봅니다.



### 바리스타

해송에는 커피를 좋아하는 학생들이 참 많은데요. 진로교육프로그램의 일환으로 내가 원하는 커피를 직접 만들어볼 수 있는 바리스타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커피원두를 직접 갈아서 내리거나, 스팀우유로 라떼아트를 만들어 보기도 합니다. 좋아하는 취미활동을 통해 자격증까지 따고 또 전문바리스타로 활동할 수도 있으니 이거야말로 1석2조가 아닐까요? 멋지게 성장할 해송직업사관학교 학생들을 힘차게 응원해주세요!





## 해솔인터뷰



### 해솔에서 받은 가르침으로 이젠 내가 가르쳐주고 싶어요

한국관광대학교 1학년 김병수

해솔직업사관학교를 졸업하고 한국관광대학교  
관광중국어과 19학번 새내기로 입학한 김병수 군,  
지난 5월 중간고사를 마치고 잠시 시간을 내어  
해솔을 방문해준 반가운 얼굴을 소개합니다!

#### 해솔과의 만남, 낯설었지만 금세 적응했어요

해솔직업사관학교에 오게 된 이유는 어머니의 권유였어요. 저는 중국에서 태어나 먼저 입국하신 어머니를 따라 18살 때 처음 한국에 오게 되었어요. 해솔의 여자감선생님과 어머니가 아는 사이였는데, 해솔에 와서 공부해보라고 제안해 주셨어요. 그 때만해도 한국어를 잘 하지 못했고 일반학교에 가서 한국 학생들과 경쟁할 자신이 없어서 반신반의하는 마음으로 해솔에 왔어요. 해솔의 첫인상은 뭐랄까? 내가 생각했던 학교의 모습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학교 크기가 너무 작아서 학교가 맞나 하는 생각이 들었죠. (웃음) 하지만 기숙사가 너무 깨끗하고 밥이 정말 맛있어서 금세 이곳이 마음에 들었어요.

#### 잊을 수 없는 해솔에서의 3년

해솔에서 있었던 3년 동안, 정말 많은 경험을 했어요. 자전거로 제주도일주도 했고, 10km마라톤을 뛰기도 했었고, 문화수업, 기업탐방을 목적으로 전국 곳곳 안다녀 본 곳이 없었죠. 덕분에 한국문화를 많이 이해할 수 있었어요. 또 무엇보다 한국어 실력이 엄청 늘었죠. 한글은 비슷하게 생긴 글자들이 많아 단어를 암기하는 것이 무척 어려웠어요. 그렇지만 한국어선생님을 비롯한 모든 선생님들께서 정말 친절하고 열정적으로 가르쳐 주셨어요. 초졸부터 고졸까지 검정고시를 한단계 한단계 합격하면서 자신감이 생겼고 그러면서 꿈도 가지게 되었어요. 내가 자신 있는 중국어와 열심히 배운 한국어를 함께 활용할 수 있는 여행가이드를 해보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바로 취업하기보다 좀 더 공부해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한국관광대학교로 진학하게 되었죠.

대학교에서 전공하는 수업 대부분이 중국어로 진행되다보니 공부 어렵지는 않았지만 공부를 잘하는 학생들이 많아 나도 더 열심히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직도 많이 부족함을 느끼고 있어요. 제가 중국어를 조금하다보니 한국학생들에게 많이 가르쳐주



는 입장이 되더라고요. 그러다보니 해솔에서 한국어 공부하던 것이 생각났어요. ‘아 선생님이 이래서 힘들어 하셨구나.’ 저 때문에 고생 하셨던 한국어선생님의 마음이 조금이나마 이해가 되었죠. 정말 해솔에서의 시간은 평생 잊지 못할 것 같아요.

#### 새로운 시작을 앞두고

2학기에는 중국 남경사범대학교에 교환학생을 신청했어요. 중국에 가서 건문도 넓히고 중국어를 더 열심히 배우고 싶은 기대가 커요. 내년 3월에는 군 입대를 앞두고 있어요. 군대를 가는 것이 사실 많이 걱정이 되긴 하지만, 이제는 대한민국 시민으로堂堂하게 국방의 의무를 잘 마치고 싶어요. 분명 더 성숙한 사람이 되지 않을까요? 그리고 한 가지 더 꿈이 생겼는데 저도 제가 교육 받은 것처럼 다른 학생들에게 중국어를 가르쳐주고 싶어요. 쉽지 않겠지만 언젠가는 꼭 해보고 싶어요. 이렇게 저를 성장시켜 주시고 도움주신 해솔의 이사장님을 비롯한 모든 선생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저희 어머니께서도 정말 감사해하세요. 해솔을 통해 저와 같은 많은 제3국출생 청소년들이 대한민국에서 잘 정착해가기를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 해솔과 함께해주신 분들

해솔직업사관학교에 관심 가져주시고 후원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보내주신 정성은 북한이탈청소년들을 위해 소중하게 사용하겠습니다

## 1) 시설후원 (15)

외환은행(차량, 컴퓨터, 악기, 프로그램후원), 강원랜드(차량), 한국토지주택공사(기숙사 시설 임차), (주)KCC(바닥재), 신한은행(교실 집기 일체), 신한카드(도서관 설치), 한국마이크로소프트(컴퓨터), 삼익가구(기숙사 침대), 한샘가구(기숙사 캐비닛), 지혜안전(주)(피아노), KT(학교 TV), 김일영(기숙사 TV), 염현수(김치냉장고), 박선엽(냉장고), 박정규(전자렌지)

## 2) 기관후원 (72)

(주)그린앤조이, (주)동남, (주)동남마트, (주)동남식자재, (주)동남유통, (주)명신정유, (주)설외환센터, (주)성부상사, (주)스마트스, (주)에이스휴먼파워(황중근), (주)F&K, (주)우진하니벨, (주)월비통상(이정근), (주)한아름축산, 강남비전교회, 강원도사회복지협의회, 강원도청, 강원랜드, 강원사회복지공동모금회, 교보생명, 교육부(한국교육개발원), 구세군서울지방, 구세군춘천교회, 국가비전포럼, 기쁜소식교회, 남북하나재단, 대림판공, 동남케미칼, 동신교회, 명성교회(평화통일기도회), 목요회, 민산회, 범죄예방춘천협회, BBWA, (사)더불어함께새희망, 사회복지공동모금회(중앙), 삼성전자(사회복지공동모금회), 삼척CCC(윤춘선), 생명보험사회공헌위원회, 석사감리교회, 소양제일교회, 수연산악회, 수표교회, 아산나눔재단(파트너십은), 예담교회, 예수마음교회(안동규), 예수촌교회, 외환은행74입행동기회, 원익그룹, 임정근내과의원, (재)통일과나눔, JCI춘천청년회의소, 주향교회, 춘천성서화운동본부, 춘천시푸드뱅크, 춘천시청, KB국민은행, KEB하나은행, 코엠리소시스(최병혁), 태성장학재단, 파주열쇠교회, 피델리스자선운동, 하나금융나눔재단, 한국소비자보호원 춘천지원, 한국수출입은행, 한국여자수도자장상연합회, 한국폴리텍대학춘천캠퍼스, 한샘키친춘천대리점, 함포럼, 해피빈, 헬싱기국제경영대학원, 현대차정몽구재단

## 3) 물품후원 (54)

1-1company, 강원도청, 거례열학교, 남북하나재단, 도밍고청소년센터, 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회, 봉화즐거운사과밭, 부자농원, 브레드원, (사)한국사랑나눔공동체, 서울광영교회, 석사동봉사단, 아주대학교통일연구소, 어린이도서관연구협회, 온누리교회, 재춘호남향우회, (주)신일환경무림조경, 춘천경찰서, 춘천법사랑위원회, 춘천시립도서관, 춘천효자종합복지관, 하나금융나눔재단, 한샘키친춘천대리점, 호순이애플, 희망리본, 김건원, 김두중, 김문부, 김병수어머니, 김일란, 김택희, 남정모, 박병성어머니, 박숙희, 박유신, 선은성, 성건양, 신난희, 엄용진, 이규선, 이재영, 이종훈, 장선미, 정영숙, 주경배, 주조종어머니, 차용만, 차성목, 천현숙, 최문기, 탁창식, 하병규, 한귀숙, 황태근

## 4) 개인후원 (424)

강성구 강성철 강신웅 강영애 강훈석 강희수 계창욱 고갑남 고금년 고기숙 고용석 고은명 고지영 공영희 공윤섭 광영애 광윤섭 구분용 구흥모 권매희 권복희 권순호 권영신 권영옥 권운순 권우호 권익성 권중순 권혁승 김강석 김경섭 김경숙1 김경숙2 김경태 김계숙 김계하 김광훈 김귀현 김기영 김기욱 김기택 김년수 김대영 김덕수 김동권 김동석 김동우 김동춘 김명훈 김무용 김문기 김문부 김문수 김문현 김미선 김미애 김민서 김병석 김상민 김상철 김서봉 김선례 김선숙 김선영 김선호 김성우 김성주 김세훈 김수현 김수호 김수환 김숙자 김순생 김순옥 김순희 김승성 김신중 김신환 김영국 김영록 김영산 김영미1 김영미2 김영자 김영준 김영태 김영호 김영희 김옥선 김용구 김윤 김윤수 김윤재 김은성 김은옥 김은진 김인상 김일수 김일영 김장민 김정경 김정대 김정우 김정은 김제중 김준표 김지연 김지영 김진권 김진범 김찬규 김창섭 김춘식 김평국 김학성 김현중 김호순 김효중 김희상 김희철 나웅주 나윤재 나윤진 나이준 나평균 남성건 남훈 노대구 동배영 류건주 마상기 마이클 레기나 문국자 문보현 문현영 민들레봄 박갑선 박경제 박광민 박남철 박덕재 박명광 박명희1 박명희2 박명희친구 박미숙 박병철 박상규 박선배 박수간 박수환 박승범 박시영 박영광 박영만 박영선 박영현 박영호 박옥자 박우희 박윤옥 박은희 박이순 박재경 박재범 박재현 박재호 박재훈 박정국 박정혜 박정희 박종규 박종면 박중순 박준성 박지원 박철영 박현빈 박희정 반재혁 배길원 배순옥 백운철 백윤주 백중성 변동걸 변양균 변희삼 서규태 서길원 서봉미 서영숙 서예영 서정순 서정영 서충석 서현 서현숙 석균석 석정란 선은성 선은성(단체) 성경희 성낙순 성미희 성윤모 성진양 손광국 송무숙 송수옥 송정란 신난희 신무섭 신성희 신영희 신재철 신주미 신현승 신혜정 신환철 심사이먼 심소피아 심유미 심칼레브 안병현 안수빈 안수연 안수지 안영환 안중숙 안중순 안중석 안창현 안태현 앤김 앤박 양경석 양동춘 양임 양지은(양문병) 양태규 엄주희 연제진 염정호 염현수 오경진 오부금 오상영 오유진 오중연 오해정 옥정스텐키 왕계자 왕수복 왕한석 우정희 유근호 유성숙 유성영 유영진 유은경 유인식 유재후 유전무 유중관 육동한 윤계순 윤기웅 윤미숙 윤세영 윤현집 윤호선 이갑현 이경민 이경훈 이계남 이계승 이광원 이광현 이근호 이규선 이기승 이기재 이낙근 이남규 이달용 이동국 이동섭 이동주 이문재 이미숙 이병석 이보은 이상대 이상식 이상욱 이상필 이상현 이상호 이세진 이양립 이연수 이영숙 이영희 이옥경 이영식 이용주 이윤희 이우철 이은희 이음새 이인 이인숙 이인순 이재국 이재기 이지호 이찬웅 이철우 이평자 이현락 이현주 이형식 이혜란 이혜순 이혜성 이효영 이희정 임상훈 임맨춘 임양진 임재규 임중순 임현재 임현정 장명기 장상아 장시원 전경희 전계숙 전만수 전승규 정기순 정명순 정민환 정성호 정영성 정인호 정진 정홍식 조기복 조기안 조두현 조상욱 조선희 조은현 조인목 조일형 조화자 조흥숙 조희영 주원태 주재중 진민용 진만숙 차용만 채은미 천충경 최경수 최경식 최경희 최동숙 최민숙 최복금 최상민 최석원 최성규 최승환 최시복 최연희 최영자 최영환 최영흠 최윤경 최유선 최인선 최재호 최정기 최종민(박동훈) 최진선 최해원 최현숙 최희수 추정환 추현식 추화순 김벌리윤 하연수 하천봉 하평완 하희임 한귀숙 한기영 한영재 한옥선 한유나 한인규 한재복 한재연 한현우 함인철 홍성길 홍은주 홍정애 홍태하 홍혜진 황경희 황다영 황동혁 황선중 황영주 황영호 황태근 황태중

후원해주신 주신 마음 감사합니다.

## 후원안내

지금 결심하신다면, 희망을 찾아 이곳에 온 북한이탈청소년들이  
우리사회에 온전히 정착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해솔직업사관학교가 보내주신 사랑을 학생들에게 전달하겠습니다.

후원계좌 KEB하나은행 181-890308-01605  
예금주 (사)해솔직업사관학교

- 신용카드 / CMS자동이체 / 직접이체 및 무통장입금 후원가능
- 후원금은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아래 대표번호나 이메일로 문의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해솔직업사관학교

사단법인 해솔직업사관학교 | ADD. (우 24396) 강원도 춘천시 춘천순환로  
38번길 37, 3층 | TEL. 033-263-2878 | FAX. 033-262-2878  
E-mail. haesolschool@naver.com | H.P. <http://haesolschool.org>